



- 몬트레이팍(MP) 채플
- ICY 중고등부 수련회
- 신년특별새벽/저녁집회
- 성탄예배 • 칼럼

하나님의 은혜, 첫예배의 감동



2017년 마지막 주일 몬트레이팍 채플 첫 예배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드리고 있다. (남성우 기자)

■ 몬트레이팍(MP) 채플 입당

12월 31일! 세상 모두가 한해를 마무리 하며 시원섭섭한 기분에 젖어있을 때 Monterey park 에 새로이 마련된 주안예교회의 chapel 에서는 가슴벅찬 첫 예배가 들려지고 있었다.

모든 교우가 기도과 봉사로 준비해왔던 새성전은 두개의 채플(엘에이 채플과 플러튼 채플)이 합해졌어도 여유있게 사용하고도 남을만큼의 넉넉한 공간을 보유하고 있었고 건물에 들어서면서 마주치는 넓다란 주차장은 그동안 겪어왔던 주차의 번거로움을 시원스럽게 해결해

주었다. 오백석 이상 마련된 예배당에는 두 채플에서 오신 성도님들로 빈자리를 찾기가 힘이 들었으며 첫예배의 말씀을 "한알의 밀이" 라는 타이틀로 전하신 담임목사님께서는 밀알은 겉질이 깨어져 죽어야만 그속에 있던 생명력이 밖으로 나와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전하시면서 앞으로 새성전에서 우리의 비전을 십자가에서 꺾제기를 깨버리고 하나님께서 정의해 주신 별칭을 입고 살아가는 "깨어있는 자" 에 초점을 맞추어 가는데 두기를 강조하셨다.

비록 지역적인 차이 때문에 두 채플로 구별되어 있던 했지만 매년 행사 때마다 항상 같이해왔었기에 서로가 익숙한 얼굴들이 많아서 이산가족 상봉이라도 하듯이 반가워하며 이제는 매주 만날 수 있음에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큼지막하게 꾸며진 친교실과 주방에서는 두채플에서 음식솜씨를 자랑하는 권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첫 예배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풍성하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시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셨다. <3면에 계속> | 오희경 기자 |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 MP채플 입당 소감

주안에교회 4년 하나님 인도심의 역사

MP(Monterey Park)에 자리 할 새 성전 단장을 위한 일에 동참하고 돌아왔습니다. 빨리 채플, 플러튼 채플, 엘에이 채플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모두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즐겁게 담소하며 열심히 봉사하시는 모습들이 너무나 은혜롭고 보기 좋았습니다. 앞으로 MP채플을 섬기실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MP 채플의 미래 분위기를 미리 보는 것 같아서 큰 감명을 받았습시다.

하나님께서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그들을 광야에서 40년간 연단시키시고 큰 민족으로 성장시키신 후에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 주안에교회도 플러튼 채플을 다운니에서 시작하여 4번 예배처소를 옮기며 4년간 연단시키고 부흥시키셨으며 또한 LA채플을 2년 전 LA 다운타운 작은 공간에서 적은 인원으로 시작한 후 한인타운 월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많은 인원으로 성장 발전시키시던 하나님 마침내 이 두 채플을 하나로 통합하여 함께 정착 할 수 있도록 MP 채플을 세우시고 인도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



나형철 장로
(MP채플)

에 예배 준비를 위해 많은 교인들이 나와 방송과 영상 시설 및 각종 집기들을 설치하며 또한 비록 서서 먹는 테이블이지만 점심을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었고 또 고교 강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냉난방 시설이 안되어 여름엔 아이들이 땀띠가 나서 고생들을 하고 겨울엔 반대로 한기가 너무 심해 담요로 무릎을 덮어야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배드리는 모습들은 정말로 은혜로웠고 매주 하는 봉사엔 웃음과 즐거움으로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 쪽에서 예배를 드린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며 받은 은혜와 봉사자들에게서 받은 감명으로 가슴 깊은 인상을 가지고 떠나던 기억이 지금도 또렷합니다.

드립니다.

지금 지난 4년을 회상해 보면 너무나 감회가 깊습니다. 그 당시 빨리 채플에서 섬기던 필자는 월 1회 정도는 다운니 채플에서 1부 예배를 드렸는데 매주 오전 6시

건물 시설은 좋았지만 LA 채플은 파킹 문제로 인해 교회 건물 출입이 정해진 시간과 날짜로 제한을 받았고 또 출입할 때마다 파킹 담당 부서의 봉사자님들이나 사역자님들이 일일이 게이트와 출입문을 열어주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회상해 보면 교인들은 추우나 더우나 새벽이든 낮이든 예배가 있을 때에는 언제나 서계시던 봉사자님들과 사역자님들에게 그 때마다 사랑과 감사함을 느꼈는데 이렇게 2년 가까이 쌓인 감사와 사랑이 교인들 간에 서로 가족 같은 관계를 유지하게 하고 채플 전체가 화평과 평안을 유지하는데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서로 다른 장점을 가진 두 채플 곧 힘든 환경에서도 극복하며 감사하도록 연단 받은 채플과 남의 건물을 빌려 쓰는 불편함을 겪으며 성장한 채플을 통합하여 MP채플을 이루게 하시고 넓은 건물과 주차 시설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MP채플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 지기를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온 맘 다해 주께 감사를”



■ MP채플 입장 소감

더 겸손히, 더 순종하며 달리고 뛰겠습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도 소쩍새가 밤새 울었다고 노래한 시구는 바로 주안에 교회를 위한 노래입니다.

“설중매”, 살을 에는 눈보라를 이겨내고, 눈 속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매화는 바로 주안에 교회입니다. 주안에교회는 이렇게 우뚝 섰습니다. 주님! 이렇게 저희를 인도해주셨군요. 이렇게도 저희를 사랑하셨군요. 이렇게까지 저희를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고 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적어도 저는요.

다우니에 개척을 하고 빨리 채플을 허락하실 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자신감이 넘쳤고,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뒤부터 시작된 거센 풍파는 정말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목사님은 너무 억울해서 기도가 막히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답니다. 세상에 떠도는 주안에교회를 향한 거짓 소문들은 몇몇 언



조성운 집사
(MP채플)

론을 통해 사실인양 보도가 되었습니다. 주안에교회를 다니다면, 사람들이 무슨 사이비 종교를 믿는 것처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왜 그런 교회를 다니며 꾸짖기도 했습니다. 억울한 것은 목사님만이 아니었습니다. 주안에교회를 다니는 많은 교우들이 같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많은 교우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매주 피를 토하는 듯한 절규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설교는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주님의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편승하는 많은 교회들, 그리고 목사님들과는 분명히 다른,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되새기며, 주님

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씩, 둘씩 저희들을 챙겨주셨습니다. 풀러튼 채플로 인도하셨고, 재판에서도 통쾌한 승리로 저희를 위로 해주셨습니다. 급기야는 MP 채플까지, 상상 외의 선물로 살아계신 주님을 보여주시고 인도해주셨습니다.

주님! 먼저 믿음이 부족한 저의 잘못을 빌겠습니다. 의심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격정도 끼쳤습니다. 용서해주시고. 그렇지만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앞만 보고 달리겠습니다. 너무도 과분한 선물로 주신 MP 채플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뛰겠습니다. MP 채플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욱 겸손히, 그리고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고 목사님을 보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약속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1면서 계속〉 넓은 공간에서 마음껏 찬양하며 교제를 할 수 있게된 교육부 학생들 역시 새성전에서의 첫예배를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며 즐거움을 나누었다. 하지만 주안에교회의 성도님들은 그 누구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곳까지 왔다는 생각은 하

지 않는다.

오늘이 있기까지 당신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불가능의 순간에도 당신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나라의 확장에 우리를 사용해주시만이 감사한 주안에 성도님들은 성전은 건물이

전에 우리의 몸이라는 가르침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건물에 한사람 한사람의 몸이 성전으로 거듭나서 채워져 갈 때 보여질 하나된 성전을 꿈꾸며, 오늘도 낮은곳으로 향한다.

주님! 당신께서 하셨습니다



“회복과 겸손, 용서… 크리스마스의 참 뜻”

12월 24일은 주일이면서 마침 크리스마스 이브 이기도 했다. 주안예교회는 세군데의 채플이 동시에 성탄 축하예배를 드리면서 참 성탄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맞보았다.

찬양팀의 경건한 찬양으로 시작된 예배는 예배당을 메우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감동을 전달하면서 점점 모두의 입술을 통하여서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였고, IC Kidz의 경쾌한 율동은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동심을 숨김없이 표현한 사랑스러운 순간이었다.

담임 목사님께서서는 성탄에 걸맞는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셨으며 여호와가 만드시고 여호와가 직접 걸으시는 그 “길”에 대한 세 가지의 심령의 상태를 해석해 주셨다. 첫째는 자존감의 회복으로, 자존감이란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소망을 심

어주는 것을 말하며 자존감이 낮으면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게 되는 열등감에 사로잡히기 쉬우므로, 낮아져 버린 자존감을 회복시켜야 한다. 둘째는 자기인식의 회복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함을 자기인식이라고 하는데, 낮은 마음은 끌어 올리고 교만한 마음은 눌러서 겸손으로 향하게 하며, 늘 주님 앞에서 자신이 정말 죄인임을 발견해야 한다. 셋째는 관계의 회복으로, 곧 용서를 말한다, 용서는 안으로는 내 자신이 마음의 노예로 묶어버린 일로부터 나를 풀어놓는 노력이며, 밖으로는 내가 상대방에게 베풀어야 하는 일이다.

이렇듯,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정의한 정의로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어 다시 회복시키려는 마음을 간직하고 여호와와의 길을 동행함, 이땅에 오신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라며 2017성탄의 메시지를 마무리 하였다.

특별히 엘에이채플과 플러튼채플은 오늘 성탄예배가 현 채플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되었다. 다음주부터는 Monterey park(M.P. Chapel) 성전에서 함께 섬기게 되어서 성탄과 아울러서 또 다른 기쁨이 되고 있다.

우리는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나태해진 신앙을 새로이 다짐해보기도 하고, 소홀했던 인간관계도 새로이 계획해보기도 하지만 늘 나약함의 제물이 되어버린 채 희미해져 갔던 경험을 수없이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또다시 연약함으로 무너지더라도 아기예수의 탄생과 그가 오신 의미를 기쁨으로 간직하며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분이 가르쳐주신 회복을 이루어가는 일만을 두고두고 기억해야 한다.

| 오희경 기자 |



■ 신년특별새벽/저녁집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마음을 주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란 주제로 2018년 새해 첫 5일 동안 신년 특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년과 같이 채플별로 순차적으로 한 주간씩 새벽예배를 드리지 않고 금년엔 새벽에는 밸리채플에서 새벽예배로, 저녁 시간엔 MP채플에서 저녁예배로 모였습니다. 첫날 “의분”이란 소재목으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 삶의 전부인 소년 다윗이 할례 없는 블레셋사람 골리앗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모욕과 이스라엘에 대한 치욕에 의분을 느끼고 그를 제거하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 줍니다. 또한 여호와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들과 나와와의 사이를 막아주시는 방패이시라고 만년에 다윗은 고백함으로 세상 그 어떤

영광과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다윗의 신앙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둘째 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셋째 날 “하나님에 대한 성실함” 등의 제목으로 5일간 최혁 담임목사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바라볼 수 있었고 그에게서 2018년 주안예교회 성도들의 생활의 쫓대, 믿음의 지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예배 기간 동안 고웅일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밸리채플 찬양팀과 이성우 전도사님이 리드하신 MP채플 찬양팀들이 은혜로운 찬양으로 우리 마음을 열어 주시고, 열리고 비워진 우리 마음에 최혁 목사님께서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 주셨습니다.

특별예배 기간 동안 밸리채플과 MP채플 각각 300명 가까운 많은 성도들이 매일 예배에 참가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은혜를 많이 받았고 특별히 1월 1일에는 밸리채플은 새벽예배 후 떡국을 먹으며 새해 덕담을 나누고 MP채플에서는 저녁예배 전에 떡국을 나누며 새해 인사를 나누는 모습들이 너무나 행복하고 정겹게 보였습니다. 2017년 말에 MP채플을 주안예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사 기간 동안 힘들었지만 서로 격려하며 도운 3개 채플이 협력하는 행복한 기억이 금년 내내 계속되어 우리 주안예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부흥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 나형철 기자 |

■ 2018 제직훈련

‘제3의 도약’ 을 준비하며 헌신하기를 다짐

지난 11월 마지막주와 12월 첫주 각 채플 영성집회가 제직훈련을 겸하여 진행되었다. 제직으로 임명된 분들이 다시 마음을 다듬고 생각을 맞추며 교회를 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자리였다. 교회에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많은 일들이 한쪽에서는 정리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제3의 도약을 시작하는 올해의 제직훈련을 가이드라인을 전하는 목사님이나 훈련에 임하는 제직들 모두 이전과는 달랐고 달라야만 했다. 주안에 교회는 개척을 하는 순간 이미 중형 교회 사이즈였고 그렇기 때문에 적은 제직으로 많은 성도를 섬겨야 하는 극한 헌신이 필요했다. 그렇게 짧은 시간 급격한 성장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준비된 제직들의 헌신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게 시간적으로는 짧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했던 제 1, 2의 도약을 지나 2017년을 마무리하고 2018년을 준비하는 주안예교



회는 제 3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그 도약을 준비하는 첫 단추이자 기초공사가 바로 제직 훈련이 될 것이다. 급격한 성장과 두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쉽지 않은 일을 성취함에 있어서 많은 시기질투와 시련이 있었고 그 아픔은 고스란히 성도들과 제직에게 그리고 사역자들에게 그 보다 더한 고통이 없는 듯 했다. 마치 한치 앞도 알수 없으나 명하신대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침

묵하며 둘다 또 명하신 그 때에 목이 터져서 합성을 지르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안예교회 제직들은 타교인들은 짐작할 수 없는 마음으로 지난 몇 년을 견뎌고 이제 제 3의 도약을 준비하게 되었다. 그래서 해마다 있는 제직훈련이 있지만 2018년 헌신을 다짐하는 제직들이 이번 훈련에 임하는 마음은 더욱 더 감회가 새로웠을 것이다. 힘들게 3채플을 섬겼던 정예원인이 이제 2채플로 해쳐모이며 새로운 팀워크를 만들어 갈 것이고 힘든 시절 함께했던 사역자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해쳐 모여 이전과 다름없으나 아주 새로운 하나님만이 하실 일들을 이루어 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하나님의 헤아림은 우리의 헤아림을 넘어서는 저 높은 곳에 있음을 마음에 새기며 어떠한 시련이 닥칠지라도 그 끝이 하나님께 닿아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2018년도 한마음 한 뜻이 되자 다짐하는 제직들의 마음은 새롭고 또 새로웠을 것이다. | 채은영 기자 |

말씀과 순종·성령충만·영적전쟁에서 승리를...



정경화 권사(MP) 온가족이 성령충만하여 영적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가정이 되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고 기쁨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기쁨과 감사와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서정미 집사(MP) 영육간에 강건함과,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속에서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수 있기를 기도 드립니다.



조근희 권사(MP) 우리 식구들 모두 영적으로 믿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건강의 복도 함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강충규 집사(벨리) My prayer request is for God to give me strength through this period of uncertainty in my work. For our EM group, that we all remain strong and diligent in our faith in God.



황명자 권사(벨리)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운데 있었음을 감사하며 남은 세월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혼돈과 악이 만연한 이 세대에 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어리석은자 되지말고 주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게 하소서. 주안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영적전쟁에서 승리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우석 집사(MP) 1. 저희 가족이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늘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하여 성령충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에게 주신 딸을 저희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지혜와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John Bae (EM Valley) To remain content with the love of the Lord and that nothing (Good or bad) may keep me from him.



김난희 집사(MP) 온가족의 건강과, 남편이 믿음생활을 하게 됨으로 아이들 믿음에도, 점점 부리를 깊게 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성우 집사(MP) 주안에서 더욱 기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전지연 권사(벨리) 올해는 계획했던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한채 보내야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새해를 맞으며 배운대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며 내일 종말이 온다해도 오늘 사라나무



를 심을 수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주안에 성도님들 모두 함께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서 2018년에는 교회를 부흥발전시키고 멋진 열매 맺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부남 집사(벨리) 언제나 새해를 맞을때는 이런 저런 요구와 기대를 하면서 한해를 보내게 되는 데... 새롭고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일들이 생각하면 새해에 바라고 계획했던 생각들을 잊어 버리게 됩니다. 저는 이제 새해를 맞으며 지금까지 나를 바라보시며 잠잠히 기다려주신 하나님께 사선을 집중하고,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고 기도로 힘쓰는 2018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경남 집사(벨리) 새해에는 저에게 맡겨진 의료국에서 하는 일들이 주님의 뜻대로 기쁘게 봉사하며 잘 감당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정희숙 집사(LA)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읽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골수에 새겨지는 한해가 되게 하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용화 권사(벨리) 2018년 새해에는 굳건한 믿음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기쁘고 즐겁게 주 안에서 지내고 싶습니다.



정승범 집사(LA) 온가족의 건강과, 남편이 믿음생활을 하게 됨으로 아이들 믿음에도, 점점 부리를 깊게 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노재덕 집사(벨리) 1. 우리 주변의 작은 일들의 결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고 감사의 조건이 되게 하소서. 2. 믿음의 성장이 우리 삶의 질의 성장이 되는 것을 보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3. 우리 교회가 진정 이 지역사회에서 소금의 역할을



Daniel Chung (ICY MP) I'd like to pray for the moving process. That everything goes accordingly and smoothly. And also for the new year, that I would become better as a Christian and as a person.



Justin Park (ICY MP) I'd like to pray for the transition from high school to college and hope I get in to college and I just pray that I'd be able to stay with God and not fall away.



이정미 권사(벨리) 항상 주안에서 가족이 건강하게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윤선 권사(벨리) 1. 남편 오성태 집사의 왼쪽 눈 각막이식수술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여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2. 최혁 담임목사님의 건강과 주안교교회 두 채플이 연합하며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한없는 부흥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3.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는 가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김윤숙 집사(벨리) 저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주님이 새 일을 많이 행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 43:18-21)



최정화 집사(벨리) 2018년에는 저의 예배가 더 성숙해지길 원합니다. 내 감정에 취해서 드러지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 기쁨,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흠족해하시며 미소 지으시며 받으실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된 각오



은 접어두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한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섬김의 자리를 지키며 더 나아가 저희 예배국 팀원 한사람 한사람이 은혜의 통로, 말씀의 통로, 사랑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기도하는 2018년 이기를 소원합니다.



김경애 국장(벨리 주안에라이프) “Whatever we do, do it all for the Glory of GOD” 새해에도 믿음의 본이 되셨던 선배 교수님들을 섬기는 귀한 사역을, 훗날 되돌아볼 때 후회나 미련이 남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바지의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합니다.



이현보 국장(벨리 성가대) 2018년 새해에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인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붙들고, 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성가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앞에 고백합니다. 중심이 바로 선 성가대, 서로 사랑하고 합심하는 성가대, 하나님께 기본 마음으로 찬양드리는 성가대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탄과 새해, 온 가정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소망을 가득 품고 새해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양태석 국장(벨리 미디어국) “예배의 그림자, 그러나 나도 예배자”라는 슬로건으로 미디어국 사역에 임합니다. 드러나거나 눈에 띄면 예배의 흐름을 방해하게되는 미디어국의 특성상 항상 긴장하고 사역에 집중하다 보면 정작 예배의 자리에 없게 되기 쉽습니다. 섬김 이전에 철저히 예배자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은혜로운 예배를 섬기는 사역국이기를 다짐합니다. 좀 더 편안하고 창의적인 영상 제작에 힘쓰겠습니다!



김수우 국장(벨리 기도국) 기도만이 신앙인의 살길입니다. 기도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사태를 역전시킵니다. 반전시킵니다.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며 생명입니다.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박창식 국장(벨리 의료국) 주안예교회 의료국 팀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2018년 새해를 맞아 모든 공예배 참여와 한방진료로 주안예교회 성도님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의료국을 위해 기도로 지원해 주시는 교역자님들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변함없는 기도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오병순 국장(벨리 전도국) 2018년은 전도의 해! 예수십자가의 고난, 부활, 다시오심을 전하는 성도의 사명을 바울 사도의 심정으로 .달리는 전도국되겠습니다



강진령 총무(벨리 교육1국) IC KIDZ 총무라는 직분을 맡은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은 단 한번에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만의 총동이 있었습니다. 매주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형식만 갖추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와의 영적싸움을 했었습니다. 결국 말씀이 저를 깨워주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의 모자람을 아시고 아버지께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 자리에 서 있고 아버지께서 주신 직분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아이들이 있는 이 곳을 아



최현식 국장(벨리 찬양팀) 2018년 찬양으로 섬김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문을 열고 곡조있는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의 자리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을 더하여 섬기겠습니다. 주안에서 하나되는 찬양팀, 말씀만이 삶의 지침이 되는 찬양팀,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찬양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배진호 국장(벨리 예배국)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진실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맡겨진 예배국을 섬기기를 기도합니다. 저희의 인간적인 모습



김현숙 국장(벨리 봉사국) 2018년 주안에 교회 봉사국에서 주님과 그 자녀들을 섬기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봉사와 겸손의 모습을 기억하며 참된 봉사자 되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행동하는 봉사국이 되기를 다짐하겠습니다.



김진석 국장(벨리 새가족국) 새가족국은 2018년 새로운 메뉴얼을 따라 주안예교회의 얼굴이 되어 따뜻한 사랑과 기도로 새가족을 섬길 때 새가족과 교회 또, 하나님과의 가교역할을 잘 감당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태웅 국장(벨리 교육2국)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열매를 맺을수 있는 체계적인 말씀과 영성훈련에 중요성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익히고 순종하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말씀과 사랑 안에서 주일예배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중고등부(CY)가 되겠습니다.



조성호 국장(음향팀) 음향국은 성도님들이 깊은 예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로운 찬양과 목사님의 강력한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게 기도와 연구로 최선을 다하여 섬기겠습니다.



홍영표 국장(벨리 교육1국) 세상죄와 상관없는 어린이들의 하얀 마음판에 예수님의 모습이 참되게 그려지도록 옆에서 열심을 다해 돕겠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선생님과 스태프들은 겸손하게 허리를 굽히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직분자임을 항상 잊지 않겠습니다.



황영욱 국장(돌봄사역국) 2017년에는 팀장권 사님과 도움주시는 여러봉사자들이 정성을 다하여 열심히 섬기신 사역국을 2018년도에 바통을 넘겨받아 예수님이 섬기셨던 것과 우리교회 선임들의 본을 받아 서둘지만 힘을 다하여 섬기겠습니다.



이명진 국장(MP 기도국) 예배 자리를 찾아오는 많은 영혼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더 사랑 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는 예배의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정강수 국장(MP 찬양팀)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찬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ICY 겨울수련회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2017년 중고등부 수련회는 전체 참가 인원이 이전과 비슷한 69명이 참여 하였으며 학생은 51명, 그룹리더 9명, 전도사 3명, 학부모&스태프 7명으로 구성되어 3박4일간 가장 북쪽에 위치한 Lakewood에서 은혜를 흠뻑 받고 내려왔다.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하였던 유스 수련회는 항상 추워서 오그라들었던 예년과 달리 포근한 날씨 속에서 진행되었다. 목직하게 영혼을 감싸주는 피터 유 목사의 잔잔한 설교 안에서 King’s men과 King’s woman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해주셨다. 조금은 높게 설정된 말씀 안에서 선생님과 리더들이 받는 은혜가 있었으며,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영적인 흐름을 볼 수 있었다.

이성우 전도사의 어린 시절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자의 길로 인도하고 격려하여 주셨던 분이 바로 감사로 오신 피터 유 목사이시고, 열심히 서포터해주고 찬양사역자의 길로 길을 터주셨던 사모님과 함께 자녀들의 수련회를 위하여 연합하여 사역하는 모습이 주님 안에서 너무나 아름다웠다. 너무 추워서 캠프파이어를 하지 못하였던 예년과는 달리 이번에는 모두가 나와 라면과 김치찌개를 맛있게 먹었다. 이요셉 전도사와 김유진 전도사 또한 진정으로 주님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 속에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임을 확인하였다.

개인적으로 빌리 그래함 목사의 짧은 시절 그곳에서 설교를 하시고 성령을 받으셨던 곳에 세워진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였다. 주님 우리 자녀들을 복 주시옵소서. 세상만민을 살리셨던 그 사랑으로 주안예교회 자녀들에게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옵소서. | 공태용 집사 |



The Power of The Word

Before the amazing retreat, I had a weak relationship with God and had a smaller faith in him. Now I really want to learn and know more about God. I felt his presence in worship last nice, and it just felt amazing that God was there



David Oh

for me and the rest of the world. I learned that the kingdom of God is in us-working through us. Pastor Peter had a lot of power in his words when he was preaching the word of God. We are his King's men and women. Our job is to bring as many people into the Christian army.

I want to start praying everyday, reading the Bible everyday, and just get to know God more. I want to start telling the word to the World to as many people as possible. I never want to forget that Jesus is my Savior!!!

Unexpected Brotherhood

When I first heard about the retreat I instantly thought to myself that I wasn't going to go. Not only was I at a dry season, I didn't want to ask my mom for 200 dollars. I just didn't see why I would go when I didn't think I was going to worship. Man was I wrong. God started working instantly and it led up to Pastor Sam telling me that money wasn't an issue and people pushing me telling me to go. I ended up packing and getting everything the day of departure for Forest Homes.

When I arrived at church and I don't know why, but I felt regret. That changed pretty quickly when I got here onto the retreat site. It wasn't because of Jesus not yet at least, I felt happiness from those around me.

Everything clicked on the second night. We prayed about our labels from the Word or from ourselves. I was very vulnerable and we went into small group. I think that was the most blessing part of retreat. God gave me these brothers who prayed for me while I was vulnerable and down.

After that all retreat for me was happiness because I felt God's love. In the last day I was able to worship with my full heart. After retreat I plan to not forget the love God gave me and keep my person connection with him through prayer and his word.



Ryan Kim

주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해 주옵소서



His Will, Not M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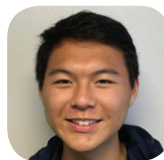
Before this retreat I was spiritually dry and my relationship with God was not a priority. This made it difficult for me to do God's work and spread his love. Even when I wanted to help my friends I couldn't because I was so empty and lacked the courage.

Through this retreat I realized that I am ready to do God's work and expand his kingdom. Through God I was able to come to this realization to remain faithful and courageous.

God also put in my heart that my life is not about my plans, goals, or dreams. Instead I need to remain faithful and fulfill his plan and follow his path. He showed me that

what I want from this world doesn't matter instead I need to do whatever he wants me to do and follow his bigger plan.

After this retreat I want a lifestyle change more than anything. My schedule and church attendance should not revolve around my musical plans. I want to live more for God and be more courageous to serve and spread God's love. So I hope that when I get back home I will not falter and lose sight of god and that I could really rely and depend on him.



David Chang



■ 코람데오 한어청년부

말씀과 기도로 양무리를 인도하는 목자가...



12월 2일 토요일 오전 8시, 이른 아침부터 화창한 날씨 속에 코람데오 한어청년부 리더들이 하나둘씩 Venice Beach 에 있는 한 카페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리더들이 모이는 자리라 특별히 최혁 담임목사님과 코람데오 간사들이 신경을 써서 장소를 섭외했습니다. 담임목사님도 바쁜 시간을 쪼개어 리더들을 격려하기 위해 참석하셔서 더욱 특별한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모인 리더들은 작은 카페에 모여 오순도순 앉아 브런치를 먹으며 그동안의 삶을 나눴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바닷가의 놀이터에 앉아서 목사님을 통해 새롭게 시작되는 코람데오 공동체의 방향과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간사들을 통해 리더들이 갖추어야 하는 자세를 점검하였습니다. 첫째, 하루에 적은 양이라도 성경을 반드시 읽을 것, 둘째, 목자는 목원을 위해 기도하고 작은 목자는 목자를 위해 기도할 것, 셋째,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기 위해 반드시 주중에 치열하게 싸워야 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새로운 리더모임 내용에 대해서 나누고 앞으로의 코람데오의 행사들을 공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명씩 돌아가며 새롭게 리더로써 시작하는 마음가짐과 결단에 대해서 나누

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왔다는 점과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작은 목자와 목원들을 걱정하고 작은 목자는 목자를 걱정하는 마음을 나누며 코람데오 리더들이 사랑으로 하나되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된 리더모임은 바닷가를 거닐며 삼삼오오 담소를 나누고 셀카를 찍으며 웃음 속에 마무리되었고 다음 리더모임을 기약했습니다.

코람데오 리더모임은 매주 토요일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12월 16일에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주일 목장모임에서 나눌 내용을 미리 리더들끼리 나누면서 소그룹을 인도하는 훈련도 하고 리더들이 갖고 있는 고민과 신앙생활에 대해 깊이 나누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리더모임에서 훈련으로 진행되는 것은 신앙서적 읽기입니다. 이번 달에는 "팔로우미" 책을 선정하여 매주 감상문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코람데오 공동체는 리더들이 먼저 참된 예배자가 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기 위하여 힘쓸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코람데오 공동체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임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부탁드립니다.

■ 임마누엘 성가대(벨리채플)

서로가 감사와 격려... 오붓한 '엘토 가족들'

지난 12월 2일(토요일) 오후 12시 30분, 박창신권사님 댁에서 2017 임마누엘 성가대 알토파트(파트장 황화진집사) 송년모임을 가졌습니다. 분주하게 살다 보니 여느새 2017년도 12월 한 달을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서, 엘토의 성가대원들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한해 동안 지내온 성도로서의 삶과, 성가대원으로서의 삶을 나누는 귀한 자리였습니다.

이 날은 특히 박창신 권사님께서 귀한 가정을 open해주시고, 손수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시어 귀한 대원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식사후에는 또 귀한 커피와 tea를 손수 끓여주시어 화기에애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또 김신실권사님께서 손수 만드신 다과를 가져오셔서 함께 후식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파트장이신 황화진집사님은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성호를 정성으로 찬양을 하다 보니, 갑상선에서 발견되었던 종양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놀라운 기적적 체험을 하게 되었다"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했습니다. 또한 지휘자장로님께서 항상 카톡을 통하여 다음주 찬양곡을 보내주셔서, 집에서 연



습을 하고 올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또한 황명자 권사님은 은퇴권사로서 성가대를 이제 그만두어야 하는지 생각했었지만, 건강이 허락되는 한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시면서, 파트장이 너무 열심히 잘 해주어 고맙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박창신 권사님은 성도님들께 "성가대에 Join하시면 하나님을 매주 찬양하는 기쁨 외에도, 많은 성도님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어서 무척 좋다"고 하시며 많은 성도님

들이 성가대에 함께 오셔서 찬양할 것을 권했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12명의 대원 중에 아쉽게도 일곱 분만 참석하였지만, 알토파트 모든 분들이 2017년도 한해 동안 모범적으로 연습과 주일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어

나무랄 데가 없는 귀한 사역을 감당한 데 대해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도 2017년도와 같이 변함없는 모습으로 성가대를 위해 헌신함으로, 하나님과 모든 성도님 앞에 은혜로운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임마누엘성가대 엘토 파트 모든 대원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 이광영 기자 |

'예배의 회복' 을 돕는 데 최우선 순위를...

■ 교역자를 소개합니다
[고웅일 목사]



안녕하세요. 고웅일 목사입니다. 주안예교회 성도님들을 만나 뵈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감격스럽습니다. 저는 부임 후 현재까지 여러분들을 직접 뵈고 인사드리면서 모두들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마음이 뜨겁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성도님들께 믿음의 도전을 드려야 하는 저로서는 그 만남들이 오히려 저에게는 부끄러운 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신학대학과 대학원을 한국에서 졸업한 후 풀타임 사역을 2년간 하면서 미국교회 사역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던 중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이민생활은 마치 자연스레 흘러가는 강물 위에 뗏단배를 띄우듯이 평탄하게 흘러갔습니다. 좋은 사역자들과 함께 좋은 환경을 누리며 사역했고 신학생 시절부터 늘 가고 싶었던 풀러신학대학원에서 박사과정까지 이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탄함은 거기까지인 듯 했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는 날 저는 제 자신이 목회를 다시 하기에는 너무 지쳐있다는 것을 실감했고, 그 길로 바로 과테말라로 가서 2년이 조금 모자란 기간 동안 과테말라시에 있는 한인교회를 섬기며 현지선교를 하였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위험한 상황들을 극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아내와 아이들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저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간의 사역했던 경험과 지식을 정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마치 제 사역의 1막을 마무리 짓는 과정처럼 여겨



졌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건너온 후 저는 하나님의 인도로 주안예교회에 부임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사역의 2막이 시작되었다는 확신과 함께 생겨나게 된 확고한 소명의식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주안예교회에 대해 받은 소명의식이 있다면 그것은 먼저 최목사님을 비롯한 다른 사역자들과 협력하여 교회의 영적 건강과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기대하고 또 여러분들의 예배가 회복되는 일을 눈으로 목도하는 것을 제 사역의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만나 뵈게 되어서 너무나 감격스럽다는 말씀 드리며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커피 한 잔에 따뜻한 사랑을 담아

■ 숨은 봉사자
[임용자 권사(벨리)]

벨리채플에는 브니엘 카페가 있습니다. 적당한 이름이 없어서 카페라고 하지만, 사실은 성도님들이 교체하며 음료나 간식을 나눌 수 있도록 간단한 음식을 파는 곳입니다. 이 브니엘 카페가 없었을 때에는 벨리채플 성도님들은 주일예배를 마치고 음료 없이 교제를 나누거나, 가까운 fast food 점으로 이동하여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이 브니엘 카페가 문을 연 이후부터는, 많은 성도님들과 ICY 자녀들도 이 카페에서 간식을 사가지고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카페를 지키는 지킴이에 임용자 권사님이 계십니다. 권사님은 여러 권사님, 집사님들과 함께 주일날 아침 일찍부터 커피를 끓이는 등 준비를 서두릅니다. 특히 여름에는 냉커피는 물론 식혜등 갖가지 음료를 준비 해놓고 성도님들을 기다립니다. 말이 장사이지, 사실은 봉사인 셈입니다. 왜냐하면 최고급 커피 한잔에 1불 50센트 이니까요. 브니엘 커피를 마셔보신 분들은 다른 곳에서는 커피를 마시기 어렵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도 그럴것이 브니엘 커피는 커피 중 최고급 quality 재료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이상 등급은 없을 것이라고 임권사님은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음료가 이윤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한다고 하십니다. 또 한가지 자랑은 매우 신선한 음료를 만들어 드린다는 것입니다. 커피 한 봉지를 내리면 6잔이 나오는데, 주일날 80잔~100잔 정도가 나가니까, 15번이상 커피를 내리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내리자마자 우리는 커피를 바로 마시게 되는 셈입니다. 조금 미리 끓여 놓으셔도 되잖아요? 라는 기자의 질문에 권사님은 “미리 끓여놓으면 맛이 없다”고 하시며 절대 그

렇게는 하지 않으신다고 웃으신다. 우리는 무심코 마시는 커피 한잔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 주시는 권사님의 정성을 함께 마시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중에는 여러 가지 재료와 상품들을 사러 장을 손수 보시고 조금이라도 원가를 아끼기 위해 본을 보여주는 권사님의 노고에 고개가 절로 숙여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권사님께서 특별새벽에 배나 교회 행사가 있을 때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봉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힐링캠프에서도 빠지지 않고 항상 기도함을 지키며 힐링 캠프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해 헌신을 다해 기도로 지원하십니다.

브니엘에서는, 금액은 말할 수 없지만 매년 번돈, 수익금 전부를 교회에 선교, 구제비로 헌금하고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아름다운 사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봉사하시는 임용자 권사님이 더욱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 이광영 기자 |

감사의 상을 차리며...

추수 감사절이 되면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진다. 특히 금년에는 아들이 보내준 꽃이 있어서 더 의미 있는 꽃꽂이를 할 수 있게 해서 마음이 설레었던 것 같다.

권사님 한 분은 제일 크고 좋은 감을 올려 드리고 싶어서 과일 하나 하나를 비닐 봉지로 싸서 추수 감사절이 될 때까지 간직 하셨다. 감이 익어갈 때면 동네 새들이 다 모여서 꺾어 먹고, 다람쥐가 가지 끝까지 기어 올라가 먹는다. 미리 다 따면 작은 감만 나오니까 봉지를 씌워 간직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했는데 정말 크고 잘 생긴 감들을 갖고 오셨다.

석류도 하나 하나 얼마나 정성을 드렸으면 크고, 아름답고 탐스러운 석류들을 갖고 오셨다. 상을 만들면서 가장 중앙에, 가장 높은 곳에 올려 드리면서 “주님, 그 마음을 읽으셨지요? 주님께 가장 좋은 것을 올려 드리고 싶어하는 권사님 마음을 받으세요.”

다른 권사님은 잘 생긴 늙은 호박을 갖고 오셨다. 반듯하고 깨끗한 호박이 잘 익었다. 호박이 열린 대로 그대로 두면 찌그러지고 색깔이 달라지는데 권사님은 반듯하게 잘 생긴 호박을 갖고 오셨는데 몇 번이나 그 얼굴을 바꿨으며 키우셨을까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반듯하고 아름다운 호박이었다. 집사님 한 분에게는 오렌지가 아직 안 익었을 테지만 꽃꽂이 할 수 있게 즐기 채 갖다 달라고 했더니 양동이 수북이 갖다 주셨다.



어느 권사님은 동생 집에 가서 오렌지 송이송이를 갖고 오셔서 예쁜 상차림과 꽃꽂이에 빛을 더 해 주셨고 올개닉 오렌지로 성도님들의 추수 감사절 식탁을 풍성하게 해 주셨다.

여인들의 정성스러운 손길을 느끼며 상에 올리면서, 기도하며 하나 하나 올릴 때 얼마나 감사 하던지. 더 예쁜 상을 차리려고 마켓에 가서 색깔을 맞추어 가며 채소와 과일을 더 샀다.

주님! 금년에도 풍성한 은혜로 감사하며, 에베에셀의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도와주는 손길에 감사하며, 도고의 기도로 단을 쌓으며 주님과 교제를 하며 감사의 상을 만들었다.

아름답고 풍성한 상을 올릴 수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이었다.

금년을 돌아보면 주안예교회 안에 감사할 일로 가득 차 있었기에 그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다. 주안예교회 이름이 태동 될 때부터 괴롭히던 거짓의 사단을 쫓으시어 억울한 마음을 풀어 주신 하나님. 60번 후리웨이에 높이 세울 십자가. 악한 영들의 맥을 끊어버릴 위치에 예배의 터전을 잡게 하시는 하나님. 돌봄을 통해 주 안에서 사랑을 키워가게 하신 2017년을 온전히 감사로 표현하고 싶었다.

터키, 햄, 마카로니 샐러드, 매쉬 포테이토, 블르클리 사라다, 로메인 사라다, 그레비와 크렌베리 소스로 맛을 내며 참 푸짐한 추수 감사절 오찬을 가졌다.

| 이예스더 기자 |



예배시간 및 교회 위치 안내

주일
예배

밸리채플/ 1부 오전 8:00, 2부 10:00
MP채플/ 1부 오전 9:30, 2부 11:30

영성
집회

수요영성집회/ 저녁 7:45 밸리채플
금요영성집회/ 저녁 7:45 MP채플

새벽
예배

밸리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MP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교육부 예배시간(교회학교)

밸리채플/ 주일 오전 10:00, 수 저녁 7:45
MP채플/ 주일 오전 11:30, 금 저녁 7:45

ICY중고등부&영어청년부

밸리채플/ 주일 오전 10:00, MP채플/ 주일 오전 11:30

Coram Deo(한어청년부)

밸리채플/ 주일 오전 10:00, MP채플/ 주일 오전 11:30

밸리채플 Valley Chapel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MP채플 MP Chapel

588 Atlas Ave, Monterey Park, CA 91755

“주안에” 2018년 1월호 원고 모집

‘주안에’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우리교회 뉴스레터입니다. 교구, 구역,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icc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예교회 문서사역국

문서사역국 명단: 오희경(국장), 김신실, 나형철, 박창신, 박희정, 오윤선, 이광영, 이예스더, 이지현, 조성은, 조용대, 채은영(기자)

안동윤, 양영, 브라이언 조, 남성우, 정인섭(사진) | 편집디자인: 김윤영